

4월 1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1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희망의 불빛`에 반등..다우 1.3%↑	일부 경기지표에서 `희망의 불빛`이 감지되면서 오후들어 투자심리가 급속하게 살아나 장중 낙폭을 줄이고 장막판 반등에 성공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09.44포인트(1.38%) 상승한 8,029.62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8포인트(0.07%) 오른 1,626.8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0.56포인트(1.25%) 오른 852.06을 각각 나타냈음.
뉴욕 제조업 지표 예상 밖 개선	산업생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뉴욕지역 제조업 경기는 예상밖으로 개선된 추이를 보였음. 우선 미 연준이 발표한 미국의 3월 산업생산이 1.5% 하락했고, 이같은 하락폭은 0.9% 정도의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 수요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전날 발표된 2월 기업재고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이같은 산업생산 위축과 관련이 있음.
美 베이지북 "일부 지역 경기위축 둔화"	미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베이지북`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과 4월초 미국의 경제활동은 지역적으로 좀 더 위축되거나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준은 그러나 12개 연방은행 지역중 5곳에선 경기위축 페이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몇몇 연방은행 지역에선 일부 산업섹터의 활동이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는 시그널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국제유가 소폭 하락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며 배럴당 49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요전망 하향이 부담이 되었음. 하지만 미국의 일부 경기지표에서 개선조짐이 확인됨에 따라 하락폭은 제한되었음.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6센트(0.3%) 소폭 하락한 49.25달러로 마감했음.
ECB, 금리 1% 지지선 둘러싸고 `이전`	15일(현지시간) 악셀 베버 ECB 이사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추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 기준금리가 현 ECB의 기준부리 이율 0.25%에 가까워지게 될 경우 은행간 대출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되는 상호 리스크를 감안할 때 대출이 오히려 위축될 될 것이라는 이야기.
中, 美 국채 보유 여전히 증가	중국이 미 채권 투자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 채권 구입은 여전히 늘린 것으로 나타남.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단기 국채 매입을 늘려 지난 2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0.6% 늘어난 7,442억달러를 기록.

제목	주요 내용
NEC-르네사스 합병 논의중	일본 2위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와 3위인 NEC 일렉트로닉스가 인수합병안을 논의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이번 인수합병안이 성사될 경우 1년 매출 1조2,000억엔(120억달러) 규모의 일본 최대 반도체 메이커가 탄생.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이어 3위 업체로 부상할 전망.
日 빅3 차업체, 재고 급감..이상적 수준 근접	도요타 등 빅3 업체들은 감산 등으로 인해 3월말 현재 미국 시장 재고 규모가 73일분으로 줄어, 전월대비 20%나 감소. 이같은 재고 규모는 금융위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한때 재고 수준이 100일분까지 급증.
OPEC, 원유수요 전망 또 하향	15일(현지시간) OPEC은 올해 일평균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당초 전망치보다 43만배럴 줄여든 8418만배럴로 제시. 이로써 OPEC은 글로벌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수요 위축을 반영해 8개월 연속 전망을 하향 조정.
신규취업 10년래 최대 폭 감소..실업률 4%대 진입	정부의 대규모 추경예산 등 일자리 유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오히려 악화됐음.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31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감소. 1999년 3월 39만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 실업률은 4.0%에 달해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실업자는 14만2,000명이 늘어난 95만2,000명으로 집계됨.
국채 발행규모 8조원 줄여야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09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74조3,000억원에서 91조2,000억원으로 22%(16조9,000억원) 늘렸는데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평가. 올해 발행물량은 2008년 발행 규모 52조1,000억원에 비해 최대 1.75배에 해당하며, 월평균 발행 물량도 2008년의 4조3,000억원 수준에 비해 크게 늘어 최대 8조1,000억원에 달함.
외국인 증시서 5일만에 순매도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29억원을 순매도.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929억원 순매수로 돌아서 10일 4,136억원, 13일 3,995억원, 14일 1,253억원 어치를 사들였던 외국인은 이날 5거래일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음. 업종별로는 전기전자(-506억원), 금융업(-393억원), 기계(-224억원), 건설업(-196억원), 통신업(-146억원) 등을 주로 팔았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